

# 소지역주의 빠져 우물안 경쟁...상시 협력체계 구성 시급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1일(현지시간) 재향군인의 날을 맞아 부인 질 바이든 여사와 함께 필라델피아의 한국전 기념비를 참배하고 있다. /연합뉴스

## 바이든, 한국전 참전기념비 헌화...“희생 존경”

재향군인의날 맞아 부인과 함께 동맹복원 행보...한미동맹 청신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미국 재향군인의 날인 11일(현지시간) 한국전 참전기념비를 찾아 헌화했다. 한국을 '혈맹', '친구'라며 각별한 마음을 표시해 온 바이든 당선인이 미국 참전용사의 뜻을 기리는 동시에 한국을 비롯한 동맹과의 관계강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워싱턴포스트(WP)와 풀 기자단에 따르면 바이든 당선인은 이날 오전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 위치한 한국전 참전기념공원의 기념비를 찾아 15분간 머물렀다. 바이든 당선인은 질 바이든 여사와 손을 잡고 성조기와 태극기가 머리 위로 펄럭이는 광장의 검은 대리석 기념비에 도착했다. 현지 의장대가 국기를 게양하고 엘버트 엘 빌링의 기도 이어 충성의 맹세 암송이 이어졌다. 이 행사를 주재한 필라델피아 판사인 패트릭 듀건과 짐 케니 필라델피아 시장이 이어 바이든 부부가 세 번째로 기념비에 헌화했다. 또 기념비 앞에 잠시 서서 묵념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행사에 참석한 일부 인사들과 사진 촬영에 응했지만 공식 발언이나 기자회견과 문답은 진행하지 않았다. 바이든 당선인은 재향군인의 날을 맞아 트위터 글에서 "오늘 우리는 미국 군대의 제복을 입었던 이들의 봉사를 기린다"고 말했다. 또 "우리의 자랑스러운 참전용사들에게 나는 여러분의 희생을 존경하고 봉사를 이해하며, 국방을 위해 그렇게 용감하게 싸운 가치를 결코 배신하지 않는 최고사령관이 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날 행사는 미군 참전용사의 희생과 봉사를 기리는 목적이 강해 바이든 한국전 기념비를 찾아 헌화한 점이 주목된다. 바이든 당선인은 승리 확정 이후 해외 우방국 정상과 잇따라 통화하며 "미국이 돌아왔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등 동맹 복원과 미국의 주도권 회복에 주력하는 인상이었다. 바이든 당선인의 헌화는 한국시간 12일 문재인 대통령과 당선 이후 첫 전화 통화 직전에 이뤄진 것이기도 하다. 바이든 당선인은 최근 연합뉴스에 보낸 기고문에서 한미동맹을 "피로 맺어진 동맹"이라고 높이 평가하고 "한국이 전쟁 이후 성취한 모든 것에 대해 깊은 존경심을 갖고 있다"며 한국을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르며 등 각별한 마음을 표시했다. /연합뉴스

### 민주당, 서울 정당 지지율 다시 선두

리얼미터 조사... 2.7%P 올라  
국민의힘 3.3%P 하락 28.9%  
문 대통령 국정지지도 46.3%

서울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접전을 거듭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2일 나왔다. 지난 주에는 국민의힘이 1위를 차지했으나, 한 주 만에 더불어민주당이 선두를 되찾았다.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9~11일 전국 유권자 15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민주당의 전국 지지율은 전주보다 1.4%포인트 내린 33.3%로 집계됐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1.9%포인트 떨어진 26.1%로 나타났다. 열린 민주당 7.6%, 국민의당 7.3%, 정의당 5.9% 순이었다. 여야간 격차는 7.2%포인트로 4주 연속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2.5%포인트) 밖이었다. 지역별로는, 내년 4월 보궐선거의 격전지로 꼽히는 서울에서 오차범위 내 접전이 이어졌다. 민주당은 2.7%포인트 오른 33.3%를 나타내면서 선두를 되찾았고, 국민의힘은 3.3%포인트 떨어진 28.9%를 기록했다.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도 민주당이 29.7%로 국민의힘을 제쳤다. 국민의힘의 부울경 지지율은 34.2%에서 27.1%로 7.1%포인트 급락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긍정 평가)은 전주보다 1.9%포인트 상승한 46.3%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1.0%포인트 하락한 49.2%였다. 모름·무응답은 0.8%포인트 감소한 4.6%다. 긍정과 부정 격차는 2.9%포인트로 오차범위 이내다. 긍정 평가는 인천·경기(4.6%포인트 ↑, 49.6%), 서울(3.9%포인트 ↑, 44.8%) 등에서 오름폭이 컸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 행정통합 추진 무색한 광주·전남 초광역협력사업 끝까지 원인과 과제

광주시와 전남도가 초광역 협력 프로젝트 발굴·지원 공모에서 타 지역에 한참 미치지 못한 성적표를 받았다. 국가균형발전의 가장 큰 피해지역으로, 미래와 직결되는 정부 공모에서 잇따라 '고배'를 마시면서 미래 발전가능성도 그만큼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초광역 협력 프로젝트는 광역자치단체의 연계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통합이나 경제공동체(메가시티) 등을 추진하는데 필요불급한 대규모 시설들이라는 점에서 광주·전남의 각별한 노력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소지역주의, 타 지역·외국 모범사례 연구 미흡, 공모 노력 및 자신감 결여 등이 원인=광주·전남이 초광역 협력 프로젝트를 제대로 발굴해내지 못한 이유로, 상호 신뢰에 바탕을 둔 협력의 자세가 결여돼 있는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대도시인 광주와 이를 감싸고 있는 전남이 지역 자원, 능력 등을 감안해 역할과 기능을 배분하기보다는 '소지역주의'에 사로잡혀 자신의 영역만을 고집하고 있다는 것이다. 에너지 등 미래전략산업이 상호 중복됨에도 협의 없이 정부부처를 따로따로 찾아가거나 광주공항 이전 문제로 13년째 마찰을 겪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심지어 한전공대 유치에 있어 광주·전남이 불필요한 경쟁에 나서 감정에 골이 생기고, 지자체의 부담이 커진 사례도 있다. 광주전남연구원을 비롯해 지역개발 인력에 대한 '푸대접'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기준에 타

### 연구 미흡·협력 부족이 주요인

### 광주전남연구원 등 푸대접도 문제

### 정부공모 나후지표 등 반영 필요

### 공동 연구모임·기관별 협의 나서야

지역이나 선진국에서 시도했던 것들을 연구해 지역에 맞게 수정·개선한 뒤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것에 인색하다는 것이다. 오랜 준비와 연구 인력에 대한 존중 등이 필요하지만, 광주·전남은 단기간에 제대로 연구가 안 된 프로젝트를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광주전남연구원이 제대로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용역을 맡는 기관 정도로 전락하고 있다. 조 단위의 대규모 사업을 구상해 보지 못한 경험 부족, 여건이나 능력을 탓하면서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자세 등도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광주·전남 공동 연구 소모임, 기관별 협의 등 상시적 협의체계 구성해야=정부부처를 설득하고 수도권, 영남권, 충청권 등 타 지역과의 경쟁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광주·전남이 상호 부단한 노력과 협력, 실천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단체장부터 주무관에 이르기까지 자주 만나 협의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소규모 연구모임을 장려하는

한편 타 지역과 외국의 전문가들을 초빙해 앞서 나가는 지방의 사례를 자주 접하는 기회를 만들어야 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테크노파크, 정보문화진흥원 등 연구개발기관들이 연구 성과를 공유하도록 유도하고, 그 성과들을 사업으로 연계시키는 방안도 찾아야 한다. 전남의 한 기관 대표는 "광주·전남이 초광역 협력을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지 못하는 이유는 마음의 간극이 너무 크고, 서로 만나서 생산적인 대화를 나누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협력사업을 연구하고 발굴하는 분위기를 형성시키는 것이 단체장의 의무"라고 꼬집었다. ◇정부 공모 기준에 균형발전지표, 낙후지수 등 반영하는 등의 방안 필요=앞으로 정부 공모는 명실상부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기준에 균형발전지표, 낙후지수, 소멸위기지역 등을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인구, 경제성, 접근성 등을 중시한 과거 예비타당성 조사, 국책사업 공모 등이 오히려 지역 간 불균형을 고착시켰기 때문이다. 연구개발기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광주·전남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도록 관련 기관의 이전, 연구인력 지원 등에 나서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도 필요하다. 정부 공모를 통해 지역을 줄세우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정부의 '입맛'을 강조한 공모보다는 지방분권 차원에서 낙후지역에 대해 대규모 예산을 지원하고 지자체가 자유롭게 새로운 사업을 실시해 그 결과를 평가받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광주만들기!

## 안전마을, 안전학교, 안전기업 선정 추진

안전문화 3·3·3 운동에 따른 3대 분야별(가정·학교·직장) 기관을 대상으로 안전에 대한 자발적 참여 동기를 부여하고, 시민 안전문화 의식 확산을 통한 안전모범도시 광주 구현을 위해 안전마을, 안전학교, 안전기업 선정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0 제2호 광주광역시 안전마을, 안전학교, 안전기업」**

- 선정시기** 2020. 12.
- 선정대상** 3개 분야
  - 안전마을 : 95개동
  - 안전학교 : 314개 학교(초·중·고)
  - 안전기업 : 737개 사업체(30인 이상 제조업 492, 건설업 245)
- 선정규모** 3개소(안전마을 1, 안전학교 1, 안전기업 1)
- 선정방법** 정량평가 50% + 정성평가 50%
  - \* 금년도 정성평가는 코로나19 방역 대책 및 활동사항 중점 평가
- 예산액** 총 30백만원
- 지원내용** 안전인증서 수여, 명판 제막식, 안전시설사범비 지원
  - 안전인증서 수여 : 분야별 인증(광주광역시장)
  - 인증명판 제막식 개최
  - 안전시설사범비 지원 : 안전마을, 안전학교, 안전기업 각 10백만원
- 공모접수** 2020. 10. 21. ~ 11. 13.(광주광역시 홈페이지 공고)
- 접수및문의** 분야별 담당부서
  - 안전마을 : 자치구 안전총괄 담당부서 (T. 동구 608-2805, 서구 360-7743, 남구 607-2951, 북구 410-6757, 광산구 960-3975)
  - 안전학교 : 시 교육청 안전총괄과(T. 380-4874)
  - 안전기업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주광역시본부(T. 949-8704)
  - \* 시 총괄부서 : 안전정책관실(T. 613-4933)

**광주광역시**  
GWANGJU CITY